

여름 산사 추억



강은교 시인

보이지 않는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벨레소리, 어디선가 달려드는 나뭇잎 소리, 낮모르는 새들의 날개 부비는 소리, 어느 집에선가 불현듯 들려오는 도마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하나...

지난 여름 나는 어느 절에 갔었다. 마침 그 절에는 종루가 있었는데 대개의 종루들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거기의 것은 그렇지 않았다. 종루 한 쪽, 그러니까 계단이 있는 쪽은 울타리가 없었다. 나는 그 계단으로 가만히 올라가 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종을 좀 더 자세히 구경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계단을 다 올라서서 종을 자세히 보게 되자 나에게 종을 한 번 만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슬쩍 만져 보았다.

슬쩍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종의 표면을 한번 긁어 보았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렸다. 슬쩍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 그러자 나에게 종을 한 번 쳐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옆에 달려있는 종채를 슬쩍 움직여 보았다. 아주 은은한 종의 목소리가 울렸다. 살짝 한 번 더 울려보았다. 세상이 다 그리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종소리. 누군가 잡아끄는 바람에 곧 그 종루를 내려오고 말았지만, 그 종소리 위로 밟고

“겸손이 ‘겸손한 체’ 하는 것을 알아버렸나 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지요.”
“차 향기가 입속을 돌게 하는 요령 없을까요? 그저 마시면 됩니다 마음을 없애세요”

가고 싶은 그런 은은한 욕망이 내 등뒤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었다.

종루를 다 내려와 절의 조용한 방들을 발걸음을 죽이고 지나오는데 한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쳐야 할 때 쳐야지”
나는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렇다. “쳐야 할 때 쳐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종소리에서는 얼마나 향기가 일어서 올 것인가”

향기, 하고 중얼거리니 어느 날의 그림 한 장이 떠오른다. 그림 속은 한없이 조용하다. 한 스님과 내가 서 있다.

“회감이 영 안 됩니다. 차를 마셔도 차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는 마시는 게 아니다, 머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영 안 됩니다. 머금으려 해도 금방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목구멍을 꿀꺽 하고 넘어가버려서 그런지, 회감하지 못한 차에선 전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입 속에 가득 돌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향기가 돌게 할까요?”
“글쎄요?”
스님은 딱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심히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말한다.
“노력은 하는데, 영 머금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향기를 풍긴다



그림 · 강병호

어떻게 하면 머금어지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는데요?”
“생각과 말이 소란스럽게 앞서서 그렇습니다.”
“저는 늘 뒤에 말없이 서있는 편이고 성품

이 조용하다고 하는데요”
“욕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욕망이 그리 많지 않는데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는 오히려 욕망은 생산하는 힘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래요? 하하 너무 똑똑하셔서 그렇군요.

지식은 곧 지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 똑똑하지도 않고, 지식이 높지도 않고, 아니 저는 오히려 바보같습니다. 남들은 항상 저보다 먼저 가지요. 저는 남들 하는 것을 영 못 따라 갑니다.”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생각해 늘 찡찡질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게 아닌가요?”
“너무 겸손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겸손하다니요? 겸손할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겸손이 ‘겸손한 체’ 하는 것을 알아버렸나 봅니다. 마음을 낮추어야지요. 말이 아니라”

“스님,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튼 차 향기가 입 속을 돌게 하는 무슨 요령 같은 게 없을까요?”

“허 글쎄요, 아직도 요령을 찾으시다니, ‘그저 마시면’ 됩니다. 향기를 맡아야 한다고 마음을 강요하면 향기가 올 수 없지요. 마음을 없애세요”
“마음을 어떻게 없애지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이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향기를 피해 피냄새를 풍기고 있다.

흑백 사진으로 만나는 20세기 예술가들

육명심 사진전 광주 롯데 갤러리서

20세기를 살아온 대표적 문인, 미술인, 음악인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 사진계의 원로 육명심 작가의 사진전이 광주롯데갤러리에서 8월 21일~9월 3일까지 열린다.

육 작가는 1960년대 말부터 문인의 초상 작업을 시작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인간적인 면모, 갈등과 고민,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담아내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듯한 소설가 박경리, 담배꽂초 수북이 담긴 재떨이 앞에 팔베개 하고 누운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이 외수 작가, 자유로운 몸짓의 중광스님, 혼로 같이 쭉고 앉아 앞을 응시하는 서정주 시인의 모습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한다. 사진도 그런 것 같다. 특히 기록성을 바탕으로 한 사진이 더욱 그렇다. 이 사진들은 찍은 지 거의 대부분 30년에서 40년이 넘었고 심분의 일 가량이 그 후에 보충 촬영한 것들이다”
그가 만난 지인들 중 중광 스님과 사연 또한 빼 놓을 수 없는 일화 중 하나다. 1970년대 후반 스님을 만나 찍은 사진을 잡지에 발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조계종 총무원 정계위원회에서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다. 작가는 스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스님을 처음 만나보니 기인(奇人) 이전에 아주 곁물이고 대자유인이었다.

들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1980년대 이후 스님은 매스컴을 타면서 갑자기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그 까닭을 몰랐다. 이제 만인에게 크게 알려져서 가까이 가면 나는 짝짝없이 엑스트라 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한 문학잡지에 실린 서정주 시인의 사진도 인상 깊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가장 사진을 시골 촌부 같이 찍었냐고 한마디씩 했는데 서정주 시인은 정작 그 사진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중광 스님 서정주 이외수 등 대표 예술인들 앵글에 담아

“서정주 시인은 그 동안 신문이나 잡지기자들이 술하게 자기 사진을 찍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이 단연코 최고라 했다. 심지어는 붓글씨로 본인이 직접 시 한 편 써 줄 테니 내 사진하고 맞추자는 제의를 했고 나는 가까이 그려줬다고 했다”

시대를 품미한 작가의 삶을 기록한 육 작가는 광주 첫 전시를 기념해 8월 30일 오후 2시에 ‘작가와 만남’도 가진다. 이를 통해 원로 사진작가가 걸어온 길과 사진세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62)221-180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색에 잠긴 '박경리' 작가의 모습

생명의 세계에서 피워낸 연꽃

연꽃 화가 강명순 展

27일까지 제주 법화사서

연꽃 화가 강명순 씨가 8월 27일까지 '태양을 머금은 연꽃'을 제주 법화사에서 연다. 법화사 구품연지 갤러리에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하늘과 바람과 흙과 물 등 생명 세계의 축소판인 연꽃의 모습을 담았다.

'눈부신 열정' '구하루 연못에 머물렀구나' '태양을 머금은 연꽃' '바람이 스치는 황색 연꽃' 등 연꽃을 주제로 한 30여 작품이 선보인다. 고고한 자태의 연꽃은 작가의 마음 깊은 곳을 거친 심안의 꽃이다.

강 씨는 한지 캔버스 위에 황갈색 붉은색 청색을 바탕에 검은색, 보라색, 은백색의 연꽃을 피워냈다. 연꽃은 온 세상을 다 지닌듯한 꽃망울로 존재하고, 춤을 추듯 활짝 피어있기도 하다.

강 씨는 “제주의 바람과 비움의 마음이 더해져 연꽃에 비쳐진다면 황갈색톤이 아닐까한다. 이번 전시에는 황색의 불타는 열정을 담아 눈부신 고요와 정적에 마음을 담았다. 보석처럼 빛나는 자연의 미에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고 말한다.

작가는 연꽃을 그리는 과정을 온갖 번뇌와



바람이 스치는 황색 연꽃. 강명순 작

망상을 떨쳐 버리는 수행자의 삶과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일종의 고행이며 그 결과물은 환희다.

“나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도 초지일관하여 늘 행복하고 당당하고 지혜롭고 또 자비로워야 한다는 교훈을 연꽃이 피고 지는 그 장엄함 속에서 배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연꽃에서 피워냈기에 생을 다할 때까지 연꽃을 그리 생각이다”

햇살머금은 연꽃의 자태는 화폭에서 화려하면서도 성스러운 자태를 뽐내낸다. 이런 작가의 노고는 중생들에게 근심 걱정을 녹이며 마음의 평화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02)738-522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dvertisement for 'Tanghwa Chongdongbul' (Tang Dynasty Buddhist Art).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Buddhist statues and a large mural. Text includes '1,000불, 3,000불, 10,000불' and '四代傳統' (Four Generations Tradition). Contact information: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Advertisement for 'Sachal Yendeung' (Sachal Yendeung and Lighting).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lighting fixtures and bulbs. Text includes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and 'SMD LED전구(정품) 220V용'. Contact information: 불해대원기업,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